

번호 02-7

제 목	국문	우리나라 간암사망률의 지역간 차이 1992-1998			
	영문	GEOGRAPHICAL VARIATION OF LIVER CANCER MORTALITY IN KOREA 1992-1998			
저 자 및 소 속	국문	이덕희 <sup>1</sup> , 신해림 <sup>2</sup> , 정인철 <sup>3</sup> 1.고신의대 예방의학교실 2.동아의대 예방의학교실 3.부산대 지리교육학과			
	영문	Lee Duk-Hee <sup>1</sup> , Shin Hai-Rim <sup>2</sup> , Jung In-Chul <sup>3</sup> 1.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Kosin Medical College 2.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Dong-A Medical College 3.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분 야	보건관리 ( )	발 표 자	일반회원 (V) 전 공 의 ( )	발표 형식	구 연 ( V ) 포스터 ( )
	역 학 (V) 환 경 ( )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V ) → 완료 예정 시기 : 2000 년 12월				

1.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간암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간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중 위암다음으로 2번째로 중요한 암이며 전체 암사망자중 약 20%를 점유하고 있다. 최근 부산시 지역암등록사업에서 산출된 부산의 연령보정 간암발생률은 인구 100,000명당 남자는 57.9명, 여자는 17.1명으로 서울의 연령보정 간암발생률 남자 47.3명, 여자 13.6명보다 남녀 공히 1.2-1.3배정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다른 흔한 암종인 위암, 폐암 등은 두 지역에서 매우 유사한 발생률을 보였으며 대장암은 오히려 서울이 다소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부산과 인접하여 있는 일개군의 간암사망률이 전국 평균에 비하여 2배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어 우리나라내에서도 간암발생률과 사망률의 지역간 분포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간암 사망률의 지역간 분포차이를 비교하고자 시행되었다.

2. 연구방법

1992년부터 1998년까지 통계청에 보고된 사망자료 총 1,662,783건중 성별추정이 불가능하였던 4,547명을 제외한 1,658,236건(99.7%)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사망원인이 155(KCD2기준) 혹은 C22(KCD3기준)로 기재된 사람을 분자인 간암사망자로, 1995년도 인구센서스자료를 분모로 하여 조사망률을 산출하였다. 지역간 암사망률은 사망당시 주소지를 기준으로 산출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간암사망률을 전국 평균 간암사망률과 표준사망비(Standard Mortality Ratio, SMR)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사망신고서에 기재된 암사망원인이 사망진단서 첨부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지역별 사망진단서첨부율을 고려하여 산출한 보정 간암사망자수를 이용한 SMR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 3. 연구 결과

우리나라 간암 조사망률은 인구 100,000명당 남자 33.0명, 여자 10.3명이었으며 연구기간내 연도별 조사망률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간 SMR의 범위는 남자 77.3-146.2, 여자 73.8-131.3이었으며 특별시와 광역시 7곳중에서는 유일하게 부산만이 남,녀 모두에서 유의하게 높은 간암사망률을 보였다. 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경남과 전남이 뚜렷하게 높은 간암사망률을 보였으며 경북과 전북도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간 경향의 차이는 지역별 사망진단서 첨부율을 고려하여 산출한 보정간암사망자수를 기초로 계산한 간암사망률에서도 여전히 유사하게 존재하였다. 기초자치단체간 간암사망률 비교에서는 남부지방에서도 특히 낙동강 유역, 영산강 유역, 해변가 지역, 인근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간암사망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간암사망률의 지역간 분포는 유사한 생존률을 가지고 있는 폐암사망률의 지역간 분포와는 차이가 있었다.

### 4. 고찰

간암은 세계적으로도 지역간 분포차이가 큰 주요 암종 중 하나이다. 미국과 서유럽에는 매우 드문 반면, 동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하 아프리카 지역에는 가장 흔한 암종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지역의 간암발생률은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와 유사한 분석이 일본과 중국에서도 시행된 바 있는데 일본에서도 큐슈지방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에서 높은 사망률을 보인 바 있으며 중국에서도 주로 남동부지역, 연안지역의 간암사망률이 높았는데 특히 양쯔강유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형간염, C형간염, 아플라톡신은 간암의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알코올은 발생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위험요인으로 입증되었으나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서의 그 역할은 논란이 많다. 그 외 스테로이드, 철분, 흡연 등과 간암과의 인과관계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 보여준 지역간 간암 사망률의 분포 차이가 이미 알려져 있는 간암 위험요인의 분포 차이로써 설명 가능한 것인지, 혹은 다른 위험 요인의 가능성을 시사하는지에 대하여서는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이다.